

대통령실 비서관 재산 평균 18억원

〈수석 비서관 제외 34명〉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국무위원, 각 부처 차관을 제외한 대통령실 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부처·기관별 2급 이상 고위공직자 73명(신규 임명자)의 재산 평균액이 17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은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못지 않은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1일 이후 신규 임명자 중 2급 이상 고위직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73명의 재산 평균액은 17억6천558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김은혜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97억3천155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2억4천897만1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 가운데 30억대 이상 자산가는 1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1억8천426만원)과 김

2급 이상 신규 공직자 73명 평균 재산은 17억원

김은혜 부대변인 97억 최고...노연홍 1억8천 최하

명식 인사비서관(1억8천973만9천원)은 이번 공개자 가운데 재산이 적은 1, 2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김백준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비서관 34명의 재산 평균액은 17억9천677만8천원에 달했다.

또 34명 가운데 21명이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기자 출신인 김은혜 부대변인은 변호사인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보타워빌딩(3275㎡, 1/4 지분) 84억여 원을 신고했으며 14억7582만원 상당의 예금도 신고했다.

40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강욱 민정 비서관은

도곡동 타워팰리스(신고가액 19억 3000만원)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여의도와 서초동, 강남구 신사동 등 버블 세븐 지역 상가와 사무실 아파트 5채, 34억 8000여만 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백준 총무비서관은 용인시 수지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권 등 3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한편, 이날 재산을 공개한 총 73명 가운데 28.8%인 21명(28.8%), 청와대 비서관 34명 가운데 11명(32.4%)은 직계 존·비속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비서관 재산액 현황

직위	성명	재산가액(천원)	
		총재산가액	본인/배우자
대통령실 평균	34명	1,796,778	1,642,573
총무비서관	김백준	2,124,649	2,124,559
제1부속실장	김희준	501,308	251,501
제2부속실장	박영수	999,548	912,623
기획조정비서관	박영준	1,127,537	1,056,569
인사비서관	김명식	189,739	169,193
미래비전비서관	김성철	709,312	709,312
방송통신비서관	양유석	1,453,984	1,212,923
정무비서관	김두우	2,147,767	2,147,767
홍보기획비서관	추부길	312,234	264,774
행정지원비서관	황준기	1,624,862	1,256,602
민정비서관	장용석	4,149,142	4,097,105
민정차장비서관	김강욱	4,077,191	3,984,207
법무비서관	강훈	4,751,041	4,067,373
민원제도개선비서관	이상욱	701,174	681,174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5,932,923	5,932,923
통일비서관	염종식	903,648	903,648
재정경제비서관	김종연	1,740,529	1,472,783
금융비서관	김준경	3,179,364	2,744,238
지식경제비서관	김영선	255,733	253,541
홍보기획비서관	송승조	1,091,848	1,091,470
국토해양비서관	신재영	2,219,388	1,924,567
농수축산식품비서관	민홍욱	256,353	243,372
보건복지비서관	노연홍	184,260	184,260
여성가족비서관	이승미	884,650	102,350
고용노동비서관	이영호	1,479,604	1,479,604
환경비서관	이성영	2,077,355	2,053,759
교육비서관	최세영	323,034	317,252
과학기술비서관	김창경	1,814,765	1,114,444
문화체육비서관	김준홍	507,006	336,667
관광체육비서관	오정민	567,876	533,282
대외협력비서관	김민혜	9,731,559	9,720,500
부다변안비서관	배용수	1,325,317	1,325,317
언론비서관	박문신	1,005,737	1,005,737
언론2비서관	곽경수	740,000	172,000

현장과 시각

金大中 이름 붙이기 유감



채희중

사회2부 차장

이달 말 개봉 예정인 '김대중 대교'로 이름 지어지면서 김대중 명칭 붙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김대중 강당, 후광로 등 각종 시설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4년전 부터다. 지역 출신으로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데 이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취지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민주화와 노벨평화상으로 인해 국제적 인지도는 물론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최고의 브랜드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때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나 '광주'는 몰라도 '김대중'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국제적 지명도가 높다.

때문에 지난 2005년 광주시가 여론조사를 토대로 광주 전시간컨벤션센터(GEXCO)를 '김대중컨벤션센터'로 바꿀 때만 해도 지역민들의 호응이 컸다.

김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공공시설물은 4개다. 최초는 2004년 전남도가 도청 앞 광복8차선 도로를 김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따 이름지은 '후광로'다. 이어 전남도가 2006년 청사 내 시설물 이름을 개명하면서 대강당을 '김대중 강당'으로 바꿨다.

이 같이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전남도는 모두 지역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쳤으며,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다리에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심지어 김 전 대통령의 출생지인 신안군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신안군 일부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7년여 동안 주민들이 불렀던 '압해대교'라는 이름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문체의 다리는 김 전 대통령과도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전남도의 명칭 결정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김대중 이름을 붙인 4개의 시설 중 컨벤션센터만이 호남 유일의 시설이라는 점을 빼면 나머지는 어느 것 하나 특색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김대중 이름붙이기에 무안국제공항도 줄을 설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개항 당시 '김대중 공항'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오는 6월 광주공항의 국제선이 이 전래 국제공항으로서 입지가 확고해지면 김대중 공항으로 교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활용과 남용은 다르다. 좋은 뜻으로 활용한 좋은 이름이 크고 작은 시설물에 마구 붙으면 오히려 값어치와 품위가 떨어질 수 있다.

/chaehi@kwangju.co.kr

20명 '버블세븐'에 부동산...12명은 재산 고지 거부

〈집값 급등지역 7곳〉

■靑 비서관 재산 분석해 보니

일부 비서관 증여세 탈루 의혹

새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평균 재산 보유액은 약 18억원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7일 공개한 새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백준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관 34명의 평균 재산은 17억9천677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토지보유 평균액은 3천775만9천원, 건물보유 평균액은 13억4천6만3천원, 예금은 4억8천44만1천원 등으로 조사됐다.

◇김은혜 97억 최고, 노연홍 1억8천 최하=비서관 34명 가운데 김은혜 제1부대변인의 재산이 97억3천155만9천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은 1억8천426만 원을 신고해 최하위에 그쳤고, 김명식 인사비서관도 1억8천973만9천원으로 총 재산이 2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재산이 100억원에 육박한 김은혜 부대변인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 빌딩(가액 87억9천만원),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6억1천만원)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임야(8천800만원) 등을 배우자 유



청와대 이동권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의 청와대 장·차관급 인사들의 재산 등록현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후 따라나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씨 명의로 신고했다.

◇'버블세븐' 부동산 보유=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 34명 가운데 20명이 집값 급등지역인 이른바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광진·용인)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명이 신고액 기준에만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로 분류됐다. 중부세 대상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산액 3억원 이상 등이다.

◇12명 고지 거부=이날 재산이 공개된

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의 가족들이 '독립생계' 등의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이 예상된다. 김준경 금융비서관의 경우 장녀 명의로 총복 제천에 1천300여만 원 상당의 임야를 신고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준경 비서관과 강훈 비서관이 각각 자녀 명의로 4억원 이상의 예금을 신고하는 등 일부 비서관들이 자녀 명의로 재산을 상당액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무연고 땅 취득 적법해도 매각하라”

靑, 1급비서관 '재산 논란' 차단 주력

7일 재산 등록현황이 공개된 청와대 1급 비서관 34명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지난번 수석비서관들과 달리 뚜렷하게 부각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날 새 정부 출범 초 조각 수석비서관들의 잇따른 재산 과문을 염두에 둔 듯 대변인실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하는 등 사전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

김상철 미래비전비서관의 경우 경기도 파주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땅이 지난해 2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김 비서관은 “농지인 적이 없었으며, 토지공사에서 주택단지조 조성된 것을 분양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준경 금융비서관은 지난 2005년 총복 제천의 무연고 임야를 장녀 명의로 취득한 뒤 필지 분할을 한 것으로 돼 있으나 총 공시지가가 1천300여만 원에 그친 데다 위장전입 등의 실정법 위반은 없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 지역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3천만원 상당의 대지와 무허가 주택을 매입했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무허가 주택이지만 등록대장에 등재돼 재산세를 납부했고, 매입 당시에 이미 시세가 오를 대로 올라 시세차익을 본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이를 위해 형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으로 신고했다.

김훈 법무비서관은 장남·장녀 명의로 각각 2억3천600만원, 1억8천500만원을 예금했는데, 지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이번 재산등록 이후 자진 납부했다.

1급 비서관 중 최고 재산가인 김은혜 제1부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대치동에 87억짜리 빌딩 지분을 갖고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의 자녀 김 부대변인 아들 명의로 1천100여만원이 예금돼 있는 데 대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적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무연고 지역의 토지와 임야를 갖고 있는 경우 취득과정이 적법하다고 해도 청와대 비서관들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조기 매각토록 했다”면서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미납도 자진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어버이 살아선 채 섬기기란 다하여다. 지나간 후만 매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 조선시대 충신전정숙사 부도군을 고쳐서서서 후손인 사모 —

5월 8일 어버이날

니스인 메디칼(주)제품

광주연세병원

선명